

EBS, Quam Libet.

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

	A는 누구? 22p
1	“과인같은 사람도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? 라는 제 선왕의 질문에 대해 A는 ”신(臣)이 호호에게서 들으니, 왕께서 당상(堂上)에 앉아 계시다가 소를 몰고 당하(堂下)로 지나는 자가 있어, ‘소는 어디로 가느냐?’라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‘피를 내어 제사를 지내려고 하옵니다.’ 왕이 말씀하기를 ‘놔 주어라. 내 그 소가 떨며 죄 없이 사지(死地)에 끌려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노라.’라고 하셨다니,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?”라고 묻고 ”이러한 마음이면 족히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. 백성들은 모두 다 왕께서 인색하다고 하지만, 신은 진실로 왕께서 그 꼴을 차마 볼 수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“라고 하였다.
	A는 무엇?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누구? 밑줄 친 그 기(氣)란? 24p
2	<u>그 기(氣)</u> 됨이 크고 지극히 강하여, 곧게 기르는 데 해되는 것이 없으면, 곧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. 그 기는 언제나 A(와)과 도(道)에 짝하여 함께한다. 이 기는 A에 따른 행동을 거듭하는 데 따라서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지, 밖에서 사람에게 닥쳐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. 그러므로 반드시 A(을)를 쌓을 것을 일삼고 그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.
	누구? 25p
3	음악은 위로는 하늘과 귀신이 용서치 않고, 아래로는 만백성의 이익에도 어긋난다. 오늘날 천하의 사대부 군자들이 진정으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악을 없애고자 한다면, 음악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.
	각각 누구? 26p
4	A : … 요순은 본성을 그대로 따른 분이고, 탕왕과 무왕은 인의를 체득한 분이다. B : … 예가 아니면 보지도, 듣지도, 말하지도, 움직이지도 말아야 한다.
	누구의 주장? A는 누구? 27p
5	성왕(聖王)이 나지 아니하여 제후(諸侯)가 방자하며, 처사(處士)들이 마구 의견을 내세워 A와(과) 목자의 말이 천하에 가득하여 천하의 말이 A(에)게 돌아가지 않으면, 목자에게로 돌아간다. A는 나만을 위하니 이것은 임금이 없음이요, … 그들의 도(道)가 그치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, 이것은 간사한 말이 백성을 속여 인의(仁義)를 꼭 막아버림이다. 인의가 꼭 막히면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다가, 나중에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.
	누구? 27p
6	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니 위 아래의 차등이 있고, 명군(明君)이 국가의 정치를 처리하는 제도와 차등을 두니, 무릇 귀한 이가 둘이면 서로 섞일 수 없고 천한 자가 둘이면 서로 부릴 수 없음은 자연의 도리이다. …

1. 맹자 2. 의(義), 맹자, 호연지기(浩然之氣) 3. 목자 4. A : 맹자, B : 공자 (요순을 몰랐다면 찾아보고 암기하세요. 제시문 독해에 큰 힘이 됩니다. ‘요순’ 체크하시라고 만든 문제입니다.) 5. 맹자의 주장. A : 양주 6. 순자